

##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, 농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

윤임장훈 | ① 입력 2023-04-24 16:52 | ② 수정 2023-04-24 16:52



정읍지사 직원들이 농촌 취약세대를 방문해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펼쳤다. 사진제공=정읍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(지사장 하인호)는 최근 다솜동지복지재단과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'농촌 집 고쳐주기'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.

정읍지사에 따르면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.

대상 세대에는 △난방을 위한 보일러 설치 △낙상방지를 위한 계단 및 난간설치 △단열을 위한 샷시교체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.

하인호 지사장은 "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농촌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저작권자 ©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